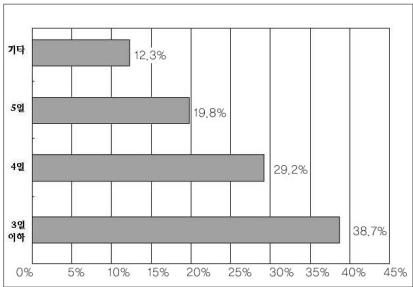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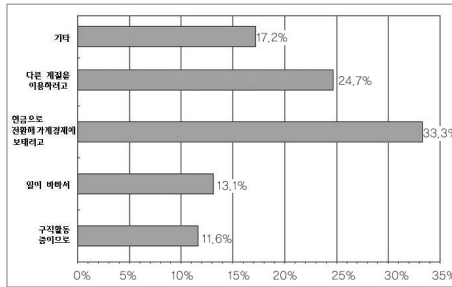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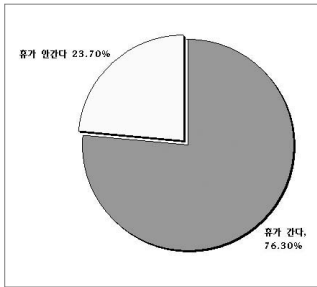


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 ■■■

휴가 VS 경기침체




최근 몇 달 동안 경기 동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경기침체 확률이 70%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또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의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.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, 무리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경기침체라는 악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. 한 취업사이트에서 직장인 834명을 대상으로 휴가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다.

휴가에 대한 설문조사(직장인 총 834명을 대상) 휴가를 떠나겠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76.3%로 지난해 94.5%보다 18.2%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2004년 78.7%보다도 낮게 나타났다. 휴가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'휴가 수당으로 살림에 보태기 위해' 라는 응답이 33.3%로 가장 많았다. 또 다른 이유로는 '업무 때문에' 라고 답한 직장인이 13.1%로 나타났다. 이 밖에 '다른 계절을 이용하려고' 24.7%, '구직활동 중이므로' 11.6%, 기타 17.2%로 조사되었다.

한편 해외여행을 떠나는 직장인도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. 지난해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나겠다고 답한 직장인은 21.2%나 되었지만 올해는 5.2%포인트 감소한 16.0%만 해외로 휴가를 떠나겠다고 대답했다.

'여름휴가 기간'에 대한 설문 결과 '3일 이하'가 38.7%로 가장 많았으며, '4일'이라는 응답은 29.2%로 전체의 67.9%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해에 비해 휴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.

"휴가비로 계획 중인 금액"에 대한 설문에서는 '10~20만원 미만'이 25.5%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, 이어서 '20~30만원 미만'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23.6%, '30~40만원'이 12.7%였고, '90만원'이라는 응답자도 8.0%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처럼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를 가는데 소극적인 원인은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회사의 악화된 경영과 휴가비 등에 따른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. 

출처 : 잡코리아